

주간 통일정세

2017-48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2	北, 군중집회 열고 축포 쏘고... '핵무력 완성' 자축(연합뉴스) 北 외무성 "트럼프패 핵전쟁 구걸"... 한미 공중훈련 비난(연합뉴스)	
	123	北 김정은 "뚝지못할 난관없어"... 미사일발사차량 타이어공장 시찰(연합뉴스) "北 리명수 총참모장, 귀순사건 열흘 후 JSA 극비 시찰"(연합뉴스) 北, 우주과학 토론회 개최... '우주개발' 의지 재확인(연합뉴스) 北, 한미 공중훈련에 "핵전쟁 뇌관 될 수 있어" 비난 공세(연합뉴스) 北 조평통, 한미 공중훈련에 "자제력 한계 넘어서게 하고 있어"(연합뉴스)	
	126	北 김정은,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신축한 감자가루공장 시찰(연합뉴스)	
	127	北 외무성 "전쟁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北 통신,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리용호 외무상 면담 보도(연합뉴스)	
	군사	121	해외전문가 "화성-15, 엄청난 개선... 美·中·소련 미사일급"(연합뉴스) 국방부 "화성-15형은 신형 ICBM급... 1만 3천km 이상 비행가능"(연합뉴스)
		123	美 관리 "北 '화성-15'형 대기권 재진입 실패 가능성"(연합뉴스)
125		美 전문가 "화성-15형, 사드 등 요격체계 교란 능력도 갖춰"(연합뉴스)	
경제	123	"北 시장서 디젤유 휘발유값, 지난달 초보다 크게 하락"(연합뉴스) 몽골 北 노동자 1천 200명 연말까지 귀국길에 올라야(연합뉴스)	
	127	VOA "中, 10월 북한에 정제유 제품 수출 안 해"(연합뉴스)	
사회 문화	124	北 TV 모든 영상 16:9 비율 HD급으로 수신돼(연합뉴스)	
	125	北 함북 길주군 인근서 규모 2.8 지진... "6차 핵실험 영향"(연합뉴스)	
외교 국방	122	北, 방북 러 의원대표단에 "핵보유국 인정받아야 美와 협상"(연합뉴스) 왕양 中부총리 "북·중, 혈맹에서 이제 핵문제로 대립 입장"(연합뉴스) 北 대표, 유엔공업개발기구서 "가혹하고 반인륜적 제재 가해"(연합뉴스)	
	124	"北, 트럼프 미사일 대응 파악위해 10월 美전문가 접촉"(연합뉴스) 日 국회, ICBM급 발사 北규탄결의안 채택... "국제사회에 정면도발"(연합뉴스)	
	127	北 통신 "북·러, 자유박탈형 판결 받은 자 인도조약 체결"(연합뉴스)	
	128	러 "北, 안전보장 받고자 북·미 대화 희망... 틸러슨에 전달"(연합뉴스) "핀란드, 北대사 불러 도발 즉각 중단 촉구"(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2.3	압록강 타이어공장 현지지도	최룡해, 홍영칠, 조용원, 유진	-
12.6	삼지연 감자가루생산공장 현지지도	최룡해, 김용수, 조용원, 마원춘, 김용철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2. 3.

■ 北 김정은 “뚝지못할 난관없어”...미사일발사차량 타이어공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 타이어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압록강타이어 공장’을 시찰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에서 중시하는 타이어 생산 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압록강타이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타이어들과 새로 개발한 탄도로켓 자행발사대차(이동식 발사차량)의 대형 타이어들을 보시었다”고 전했으며, 이어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11월 대사변’ 준비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던 지난 9월 압록강타이어공장에 우리 식 9축 자행발사대차의 대형 타이어를 무조건 개발 생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밝힘.

2017. 12. 6.

■ 北 김정은,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신축한 감자가루공장 시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건설을 지시한 이 공장은 연건축면적 2만 7천 920여㎡에 연간 생산능력이 4천t이며, 감자가루 및 감자 가공품 생산을 위한 건물과 2만t급 감자 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공장 시설 여러 곳을 돌아본 뒤 “감자 산지인 삼지연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세운 감자가루 생산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좋고 흐뭇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정은은 “영양쌀, 편튀기, 파배기, 국수, 우동을 비롯한 더 많은 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삼지연군의 특산물로 온 나라에 소문나게 하라”며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공장으로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통신은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2. 3.

■ “北 리명수 총참모장, 귀순사건 열흘 후 JSA 경비 시찰”(연합뉴스)

- 3일 북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명수는 지난달 24일께 JSA 북측 경비초소와 관문점 경비부대 등을 전격 시찰했는데,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귀순한 이후 군 최고위 인사가 시찰을 한 것임.
- 리명수는 북한군 검열부대가 JSA 북한 경비부대를 대대적으로 검열한 직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군은 귀순사건 직후 JSA 경비병력(35~40명) 전원을 교체했는데, 이는 경비부대 검열과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 현재 JSA 북측지역의 72시간 다리에 검문용 통문과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등 경계시설이 대폭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귀순사건 이후 관문점 경비부대뿐 아니라 그 상급 부대의 지휘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2017. 12. 7.

■ 北 통신,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리용호 외무상 면담 보도(연합뉴스)

-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7일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북한) 외무상 리용호 동지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부사무총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고 한 줄로 짧게 전함.
- 중앙통신은 리 외무상과 펠트먼 사무차장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2. 2.

■ 北, 군중집회 열고 축포 쏘고…‘핵무력 완성’ 자축(연합뉴스)

-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자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조선중앙통신은 2일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가 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대회에서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 성명을 낭독했으며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박철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경축연설을 했고, 이날 대회 주석단에는 최근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모두 참석하지 않음.
- 박광호 당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게 됐다”며, 그는 “주체 조선의 핵무력 강화에 질겁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이제 또다시 날강도적 행위에 매달릴 수 있다”며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망동에 대처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하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지난 9월 21일 성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바”라고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군민연환대회가 끝나고 대동강변에서는 ‘화성-15’형 시험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축포 발사가 이어짐.

2017. 12. 3.

■ 北, 우주과학 토론회 개최...‘우주개발’ 의지 재확인(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린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17’의 내용을 소개함.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관계자는 신문에 “(토론회에서는) 평화적 우주개발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조종기술 등 우주 정복에서 이룩한 성과와 응용 경험들을 교환하게 된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이 된 조건에 맞게 우주과학기술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주개발과 이용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주장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2. 2.

■ 北 외무성 “트럼프패 핵전쟁 구걸”...한미 공중훈련 비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성명에서 오는 4~8일 진행되는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과 최근 미 항공모함 3척이 한국군과 연합 훈련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 트럼프패는 조선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여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함.
- 성명은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있으며 핵전쟁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진짜 핵전쟁 광신자, 핵 악마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광증으로 조선반도와 전세계가 핵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말려들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2017. 12. 3.

■ 北, 한미 공중훈련에 “핵전쟁 뇌관 될 수 있어” 비난 공세(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대해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핵전쟁 발발 국면으로 더욱 바짝 몰아가는 위험한 도발망동”이라며, “연합 공중훈련은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전면 도전으로서 순간에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를 겨냥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소동이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변했으며, F-22 ‘랩터’와 F-35A, F-35B 등 이번 훈련에 참가할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열거한 뒤 “미국과 괴뢰들이 스텔스 전투기 따위를 가지고 객기를 부리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주장하기도 함.
-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이날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는 기사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또 한 차례의 선전포고와 같은 특대형 도발을 해 온 이상 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라고 위협함.

■ **北 조평통, 한미 공중훈련에 “자제력 한계 넘어서게 하고 있어”(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대해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틀어쥔 우리의 인내성과 자제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평통은 ‘끊임없는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나 비떼 같은 비행대와 핵 전략자산들을 끌어다 놓고 허세를 부리며 공갈과 위협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조평통은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3개의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투입하여 핵전쟁 연습 소동을 피우고 우리 공화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폭거를 부린데 이어 강행되는 이번 전쟁 불장난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 9월 21일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내용을 거론하며 “성명을 다시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위협함.

2017. 12. 7.

■ **北 외무성 “전쟁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북한은 6일 미국 고위인사들의 대북 강경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미국은 매일과 같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광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의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고위정책들이 줄줄이 나서서 호전적인 망발들을 늘어놓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속에 미국의 고위정책들의 입에서 연달아 터져 나오는 전쟁 폭언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전쟁이 터지는가 하는 시점상 문제”라고 위협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2. 1.

■ 해외전문가 “화성-15, 엄청난 개선…美·中·소련 미사일급”(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발사 사진을 본 해외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라며 이는 미국과 중국, 옛 소련이 보유한 미사일 급이며, 핵무기를 장착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화성-15형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선 몇 차례 추가시험이 필요할 것이며, 이르면 내년이면 ICBM 기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미사일 방어 분야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엘레먼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화성-15형이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NMD) 체제를 뚫을 수 있는 기만탄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다고 설명했으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화성-15형의 2단 추진시스템은 1천kg 중량의 탄두를 미 전역 어디로든 날려 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했고, 북한이 700kg보다 가벼운 탄두를 개발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함.
-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화성-15’형은)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치고는 매우 큰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소련이 보유한 미사일 급”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화성-15’형의 크기가 커진 것 등을 거론하며 “여기에 수소폭탄처럼 훨씬 더 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수준과 관련해 “수백kg 정도 중량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핵무기를 장착하기 충분한 규모”라고도 말함.

2017. 12. 3.

■ 美 관리 “北 ‘화성-15’형 대기권 재진입 실패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방송과 폭스뉴스가 미국 관리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함.
- 한 미국 관리는 이날 CNN 방송에 화성-15형이 대기권 재진입시 부서졌을 가능

성이 있다면서 이번 미사일 비행에 대한 기술 분석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북한은 재진입 기술에 문제를 갖고 있었다”며, 그는 대기권 재진입 실패는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함.

- 폭스뉴스 방송도 이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디지 못하고 재진입시 부서졌다고 보도함.

2017. 12. 5.

■ **美 전문가 “화성-15형, 사드 등 요격체계 교란 능력도 갖춰”(연합뉴스)**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레먼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화성-15형’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유인체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엘레먼은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의 불길한 암시 중 하나는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큰 크기로 인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인체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것은 사드를 따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함.
- 그는 “북한이 유인체 실험을 했는지, (사드 등 요격체계) 대응책을 강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그러나 그것(화성-15형)은 단순한 복수의 유인체를 운반할 투사 중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 미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킹스턴 리프는 NPR 인터뷰에서 “유인체는 ‘파티용 풍선’만큼이나 단순해서 ICBM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더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일 수 있다”고 설명함.
- 엘레먼은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화성-15형은 14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라며 “이론상으로는 미국의 어느 곳이나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가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만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상 각도 발사는) 몇 주 후에 할 수도 있고, 북한이 상당 기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12. 1.

■ **국방부 “화성-15형은 신형 ICBM급…1만 3천km이상 비행가능”(연합뉴스)**

-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자료’를 통해 “북한은 29일 오전 3시 17분경 평안남도 평성일대(평양 북쪽 30km)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특성(최대고도 속도, 단 분리 등)과 외형(1·2단 크기 증가, 9축 이동형발사대) 고려 시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각도 발사시 1만 3천km 이상 비행 가능하다”면서 “이는 사거리 면에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우리 군의 정보분석 결과 대기권 재진입, 종말 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함.
- 이어 “화성-15형은 화성-14형 대비 미사일과 TEL(이동식발사차량) 길이가 각각 2m 증가했고, 1·2단 각 1m, 직경은 0.4~0.8m 증가했다”면서 “1단 엔진은 화성-14형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고, 2단 엔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2단 몸체가 화성-14형 대비 약 3~4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12. 3.

■ “北시장서 디젤유·휘발유값, 지난달 초보다 크게 하락”(연합뉴스)

- 북한 내 시장의 디젤유·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3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아시아프레스가 지난 1일 양강도의 ‘취재 협력자’를 통해 시장 주요 물가를 조사한 결과 디젤유는 1kg에 북한 돈 6천 765원, 휘발유는 1kg에 1만 5천 990원에 거래됨.
- 디젤유의 경우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초의 1만 7천 500원보다 60% 이상 하락한 가격이며, 휘발유도 지난달 초의 2만 1천 250원보다 25% 이상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RFA는 밝혔다.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12. 3.

■ 몽골 北 노동자 1천 200명 연말까지 귀국길에 올라야(연합뉴스)

- 몽골 건설현장과 섬유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1천 200여명이 올 연말까지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데, 몽골 노동부는 3일 AFP 통신에 북한과의 교역을 억제하는 유엔 대북제재안에 따라 1년짜리 노동 비자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몽골 외무부의 시지쿠진 오돈바타르는 “민영기업들은 유엔 결의안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면서 “몽골은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지난 2013년 2천 123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11월 말 현재 1천 190명 규모임.

2017. 12. 7.

■ VOA “中, 10월 북한에 정제유 제품 수출 안 해”(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10월 북한에 대북 제재 대상인 정제유 제품을 전혀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VOA는 “한국무역협회의 10월 북중 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HS) 코드가 2710인 석유 관련 제품에서 실질적으로 정제유로 볼 수 있는 제품의 대북 수출은 모두 ‘0’으로 표시됐다”고 밝힘.
- 이 방송에 따르면 자동차 가솔린과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를 포함하는 HS코드인 ‘2710.12’는 9월에 해당 품목의 대북 수출액이 16만 6천 106달러로 집계됐으나, 10월에는 0으로 나타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2. 4.

■ 北 TV 모든 영상 16:9 비율 HD급으로 수신돼(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의 모든 영상이 16:9 비율의 HD(고화질)급으로 4일 수신되고 있음.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 30분(평양시간 오후 3시) 정규방송 시작을 앞두고 기존과는 완전히 바뀐 컬러바(TV 방송에서 화면조정 시간에 나오는 색무늬)를 내보냈는데, 컬러바의 중간 원모양 기호 상단은 천리마 동상 그림과 ‘평양’이란 글자 대신 백두산 그림과 ‘조선중앙텔레비죤’이라는 글자로 대체됨.
- 특히 양옆에 검은색 공백이 있던 기존의 컬러바 화면(4:3 비율)과 달리 이날 등장한 컬러바는 여백이 없이 화면 전체를 꽉 채운 모양(16:9 비율)이었고, 화질도 전날보다 훨씬 선명했으며, 이날 정규방송 시작과 함께 내보낸 백두산의 모습과 이어 등장한 모든 영상도 TV 화면을 꽉 채운 16:9 비율의 영상인 것으로 나타남.

2017. 12. 5.

■ 北 함북 길주군 인근서 규모 2.8 지진...“6차 핵실험 영향”(연합뉴스)

- 5일 오후 11시 40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함.
-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 위치는 북위 41.32도·동경 129.13도이며,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임.
-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이며,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2. 2.

■ 北, 방북 러 의원대표단에 “핵보유국 인정받아야 美와 협상”(연합뉴스)

- 방북 대표단에 속했던 비탈리 파쎌 하원 의원은 1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에 방북 결과를 소개하면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으며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파쎌는 북한 측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소개함.
-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협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간주한다고 파쎌는 덧붙였다으며, 역시 대표단에 속했던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체프는 타스 통신에 “러시아 대표단이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한 대표들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발사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대화 행보를 보이고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화성-15형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함.

2017. 12. 4.

■ “北, 트럼프 미사일 대응 파악위해 10월 美전문가 접촉”(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전략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 트럼프 정권과 친분이 있는 미국 전문가와 접촉을 모색했다고 4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함.
-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은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들어 북한이 8차례에 걸쳐 자국 고위 간부와의 만남을 제의했다”며 “지난 10월 초에도 북한이 중개자를 통해 외무성 최선희 국장과 만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는데, 산케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색하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팔 부원장은 이런 북한의 만남

제안을 모두 거절함.

- 팔 부원장은 접촉 제안은 트럼프 정권이 발족한 1월 시작됐고 이후 4월과 8월 한미합동훈련 전후에도 제안이 있었다고 소개했으며, 북한측은 팔 부원장에게 북한을 방문하면 조선노동당과 외무성 고위 간부 등과 만날 수 있지만, 스위스 등 3국에서 만날 경우 최설희 국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함.

2017. 12. 8.

■ 리 “北, 안전보장 받고자 북·미 대화 희망…틸러슨에 전달”(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북·미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국영 뉴스통신 RIA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함.
- 앞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지난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평양은 러시아와 중국의 안전보장을 원치 않으며 미국의 보증을 원한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바란다”고 전함.

나. 북·중 관계

2017. 12. 2.

■ 왕양 中부총리 “북·중, 혈맹에서 이전 핵문제로 대립 입장”(연합뉴스)

-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가 방중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에게 북·중 관계가 과거 혈맹관계에서 핵 문제로 인해 이제는 대립관계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함.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왕 부총리는 전날 중국을 방문 중인 야마구치 대표에게 북·중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피로 굳어진 관계였지만 핵 문제 때문에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측 동석자가 전함.
-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선출돼 권력서열 4위의 고위급 인사인 왕 부총리가 북중 관계를 ‘대립’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요미우리는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초조함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함.

다. 북·일 관계

2017. 12. 4.

■ 日 국회, ICBM급 발사 北규탄결의안 채택…“국제사회에 정면도발”(연합뉴스)

- 일본 참의원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대북 독자 체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중의원도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 참의원이 이날 채택하는 결의안은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강하게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개발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라. 북·러 관계

2017. 12. 7.

■ 北 통신 “북·러, 자유박탈형 판결 받은 자 인도조약 체결”(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 ‘자유박탈형 판결 받은 자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이 조약은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수형자 이송 조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 체결식에는 강윤석 중앙재판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2. 2.

■ 北 대표, 유엔공업개발기구서 “가혹하고 반인륜적 제재 가해”(연합뉴스)

- 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장은 지난달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17차 회의에서 “적대세력들은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는 무시하고 유엔 안보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이행을 구실로 민수공업과 인민생활 분야에까지 가장 가혹하고 반인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함.
- 대표단장은 “이렇게 개별적 나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제재와 경제봉쇄는 더 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공업개발기구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원국들의 개발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실제적인 동반자로 될 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에 맞게 유엔공업개발기구와 모든 기구 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며 인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 12. 8.

■ “핀란드, 北대사 불러 도발 즉각 중단 촉구”(연합뉴스)

-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핀란드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키모라데비르타 미주·아시아 담당 국장이 헬싱키에서 강용덕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힘.
- 라데비르타 국장은 강 대사에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 핀란드 외교부의 북한 대사 초치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강 대사가 헬싱키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짐.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4	한미, 역대 최대 공중훈련 시작...美 스텔스기 24대 투입(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2.4		韓美공중훈련 개시에 中외교부 “상호 자극을 피하길 바란다” (연합뉴스)
	12.5		시진핑 “文대통령 방중·회담 기대...공동인식 도달 희망” (연합뉴스)
	12.6	문 대통령, 13일부터 3박 4일 중국 국빈방문(자유아시아방송)	
한미 관계	12.7	외교부 “한반도상황 오해 야기 언급 자제필요...中언론에 전달” (연합뉴스)	中매체들, ‘역대 최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일 비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한일 관계	12.4		日아베 “한국, 전략이익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연합뉴스)
	12.5		日여당, 韓中겨냥 “영토·역사대응 강화하라”...아베 “할말 할 것”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4		中, 美본토 서해안 사드부지 물색에 “책임 있는 태도 가져야”(연합뉴스)
			왕이 中외교부장, 北美 겨냥 “안보리 결의 벗어나지 말라” 경고(연합뉴스)
	12.7		“중국, 북한 문제 논의 위해 미국에 특사 파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2.4	미·일 전투기도 공동훈련...“北 견제”(연합뉴스)	
	12.5	日 센다이서 육상자위대-미군 공동지휘훈련 시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플린에게 ‘러시아 관리 접촉’ 지시한 사람은 트럼프 사위” (연합뉴스)	
	12.2	트럼프,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재차 부인(미국의소리)	
			러 외무, ‘북한 파괴’ 美측 발언 비난...“군사행동 큰 실수 될 것” (연합뉴스)
	12.5		러시아 “플린, 푸틴 설득해 보복 제재 유예” 부인(연합뉴스)
	12.6		러 법무부, 자국내 9개 美언론매체 ‘외국대행사’로 지정(연합뉴스)
			러 하원, ‘외국대행사’ 지정된 美 언론 2곳에 출입금지 조치 (연합뉴스)

	12.8	킬러스 미 국무장관 “러시아, 우크라이나서 철수 안하면 제재 계속”(미국의소리) 美-러 외무, 빈서 회담...“北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2.3	中, 러시아서 최신예 전투기 인도받아...대테러 합동훈련도 (연합뉴스)	
	12.6	中외교부 “중국·러시아, 한반도 핵문제 입장 일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2. 4.

■ 한미, 역대 최대 공중훈련 시작…美 스텔스기 24대 투입(연합뉴스)

-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함.
- 공군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한다”고 밝힘.
- 한미 공군은 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해왔지만, 이번 훈련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나. 한·중 관계

2017. 12. 2.

■ 韓美공중훈련 개시에 中외교부 “상호 자극을 피하길 바란다”(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4일 한미 양국 공군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합동공중훈련을 개시한 데 대해 한반도 정세가 민감하다며 유관국들이 서로 자극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황(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변함.
- 경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하며 유관 각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상호 자극을 피하길 바란다”고 밝힘.

2017. 12. 5.

■ 시진핑 “文대통령 방중 회담 기대…공동인식 도달 희망”(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서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할 수 있길 희망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5일 밝힘.

- 대사관 측은 시 주석이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함.
- 시 주석은 노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한 뒤 환영한다고 말하고 “최근 한중관계가 양호하게 발전 중”이라고 평가함.

2017. 12. 6.

■ 문 대통령, 13일부터 3박 4일 중국 국민방문(자유아시아방송)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국민 방문하며, 방중 기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유엔 사무차장이 방북 중인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상황을 평가하고 시 주석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민 방문으로 정상간 신뢰와 우의를 쌓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이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중국 외교부도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2017. 12. 7.

■ 중매체들, ‘역대 최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일 비난(연합뉴스)

- 한미 양국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이 이번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악화하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훈련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인 F-22, F-35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투입됐다”며 “이번 훈련으로 인해 북미 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함.
-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環球時報), 차이나 데일리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4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된 이후 연일 논평과 분석 기사를 통해 이번 훈련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화한다며 비난하고 있음.

■ 외교부 “한반도상황 오해 야기 언급 자제필요…中언론에 전달”(연합뉴스)

-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지린(吉林)성 기관지 길림일보(吉林日報)가 전날 핵무기 관련 상식을 1개면을 할애해 소개하고 그에 대해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북한의 첫 공격대상은 한국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평(社評)을 낸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사설은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함.
- 노 대변인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저희 뜻을 전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 한·일 관계

2017. 12. 4.

■ 아베 “한국, 전략이익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발언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관저에서 한국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협력위원회 이대순 부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표명함.
- 아베 총리는 긴박해지고 있는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압력을 최대화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상황을 만들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발언함.

2017. 12. 5.

■ 여당, 韓中겨냥 “영토·역사대응 강화하라”…아베 “할말 할 것”(연합뉴스)

-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재생전략회의 의장을 맡은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상 등은 전날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 강화 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제출함.
- 결의문에는 외무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영토·영해, 역사인식 등을 확산시키면서 관련예산도 확충하라는 제안이 담김.

- 아베 총리는 자민당 외교전략재생회의 측으로부터 결의문을 전해 받고 “확실히 말할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자국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2. 4.

- **中, 美본토 서해안 사드부지 물색에 “책임 있는 태도 가져야”(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 서해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물색에 나선 데 대해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
 - 정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방어(MD)는 세계 전략 안보 안정과 균형에 관련된 문제”라며 “각국이 책임 있는 태도로 적절히 관련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계속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민감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유관 각국이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임.
- **왕이 中외교부장, 北美 겨냥 “안보리 결의 벗어나지 말라” 경고(연합뉴스)**
 - 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4일 미국과 북한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함.
 - 왕 부장은 이날 담딘 척트바타르 몽골 외교장관과 몽골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과 그에 뒤이은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입장을 피력함.
 - 그는 이어 “현재 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각국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중국은 각종 의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규정과 정신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12. 7.

■ **“중국, 북한 문제 논의 위해 미국에 특사 파견”(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일(현지시간) 미국에 특사를 파견했다고 온라인매체 약시오스가 보도함.
- 이 매체는 중국 외교부의 정저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 문제를 놓고 높아진 양국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요 목표임.

나. 미·일 관계

2017. 12. 4.

■ **미·일 전투기도 공동훈련…“北 견제”(연합뉴스)**

- 일본 항공자위대는 4일 일본 주변 공역에서 주일 미군 스텔스 전투기 F-35와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는 주일 미 공군의 가데나(嘉手納)기지에 잠정 배치된 F-35와 함께 이날 오키나와(沖縄) 주변 공역에서 전투훈련 등을 실시함.
- 통신은 동해 인근 공역에서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미국 해병대의 FA-18 전투공격기도 훈련했다고 보도함.

2017. 12. 5.

■ **日 센다이서 육상자위대-미군 공동지휘훈련 시작(연합뉴스)**

-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미일 공동지휘소 훈련이 5일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센다이주둔지에서 시작됨.
- ‘야마사쿠라’라고 불리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적국은 상정하지 않음.
- 훈련은 적군이 일본에 상륙해 오거나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을 해 올 경우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다. 미·러 관계

2017. 12. 2.

■ **“플린에게 ‘러시아 관리 접촉’ 지시한 사람은 트럼프 사위”(연합뉴스)**

- 지난해 미국 대선 직후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러시아 측 접촉을 지시한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함.
-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된 플린은 이날 로버트 무러 특검에 의해 기소됐고 유죄답변거래(플리바긴) 공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가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접촉하라고 주문했다’고 진술함.
- 이와 함께 플린은 NSC 2인자였던 캐슬린 T. 맥팔런드 전 부보좌관과 마라라고에서 만나 세르게이 키슬랴크 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재차 부인(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 오전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과 관련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밝힘.
- 플린 전 보좌관의 유죄 인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 대선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 어떤 협력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함.

■ **러 외무, ‘북한 파괴’美측 발언 비난…“군사행동 큰 실수 될 것”(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피에 굶주린 장광설”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인식은 긴장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함.
- 그는 이날 로마에서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열린 회견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처럼 누군가 정말 북한을 파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불장난을 하는 것으로, 큰 실수일 것”이라고 강조함.
-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이 이란과 2015년 타결한 핵합의를 철회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함.

2017. 12. 5.

■ **러시아 “플린, 푸틴 설득해 보복 제재 유예” 부인(연합뉴스)**

-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제재에 대해 보복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했다는 의혹을 러시아가 강력히 부인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례 콘퍼런스콜을 통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No)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함.
- 페스코프 대변인은 플린과의 협의는 러시아 외무부가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크렘린 궁은 전혀 모르며, 플린이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어떤 제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

■ 러 법무부, 자국내 9개 美언론매체 ‘외국대행사’로 지정(연합뉴스)

- 러시아 법무부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9개 미국 언론매체를 ‘외국대행사’(foreign agent)로 지정했다고 타스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앞서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언론매체를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대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채택된 데 따른 실질적 규제 조치임.
- 보도에 따르면 ‘라디오 프리 유럽/라디오 자유’(RFE/RL), ‘미국의 목소리’(VOA), 이 2개 매체가 함께 운영하는 위성 TV방송 ‘현재’, RFE/RL의 시베리아-캅카스-볼가-바쉬키르-크림 지역 언론매체 등이 외국대행사 목록에 포함됨.

2017. 12. 6.

■ 러 하원, ‘외국대행사’ 지정된 美 언론 2곳에 출입금지 조치(연합뉴스)

- 러시아 하원이 6일(현지시간) 자국 법무부에 의해 ‘외국대행사’(foreign agent)로 지정된 라디오 자유 유럽/라디오 자유(RFE/RL)와 미국의 목소리(VOA) 등 2개 미국 방송사에 대해 출입 금지 결정을 내림.
- 하원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 RT 미국 지사(‘RT 아메리카’)가 미 법무부에 의해 외국대행사로 지정되고 현지 의회 출입을 금지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
- 하원은 “미국 의회가 여러 러시아 기자들의 출입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상응하는 조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함.

2017. 12. 8.

- **틸러슨 미 국무장관 “러시아, 우크라이나서 철수 안하면 제재 계속”(미국의소리)**
 -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료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함.
 -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내 폭력 사태의 근원으로 지목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세력을 무장하고 훈련하며 전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함.
 -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美·러 외무, 빈서 회담…“北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고 한반도 문제 등 국제현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한반도 사태와 관련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소개함.
 - 또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강화와 공격적 수사(修辭)가 야기하는 긴장 고조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작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무부는 설명함.

라. 중·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중·러 관계

2017. 12. 3.

- **中, 러시아서 최신예 전투기 인도받아…대테러 합동훈련도(연합뉴스)**
 - 중국 인터넷매체 평파이(澎湃)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인도받은

- 3차분 Su-35S 5대가 텐진(天津)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함.
- 이들 전투기는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군 남부전구(戰區) 항공병부대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러시아는 또 2일 대(對)테러 합동훈련을 시작하는 등 군사교류의 폭도 확대하고 있음.

2017. 12. 6.

■ **중외교부 “중국-러시아, 한반도 핵문제 입장 일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경샹(耿爽)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긴장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노력이나 제의를 환영한다”고 발언함.
- 그는 “중러 양국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며 시종일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함.
- 경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등이 동원된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과 관련,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민감하므로 유관국들이 긴장을 가속해서는 안 되며 상호 자극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3	몽골 “북한 노동자 비자 갱신 중단”...1200명 연말까지 귀국 해야(미국의소리)
	12.6	“북 인권 정보 수집” 칸타나 북 특별보고관 11일 방한(자유아시아방송)
		美상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외부 정보유입 강화”(연합뉴스)
12.7	“중, 북한 국경 5곳에 난민수용소 건설 계획”(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12.6	국제적십자위원회 “북한서 한국전 불발탄 사상자 매년 150명”(자유아시아방송)
	12.7	FAO, 북한 올해 쌀 140만 수확...지난해 대비 30만 감소(미국의소리)
	12.8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해 46만 부족(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12.4	남성 탈북민 교육 제2하나원 개원 5주년 맞아(연합뉴스)
	12.5	전문가 “재난 공동대응 독일처럼 남북 재난합의서 체결 바람직”(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5	국제앰네스티, 강제 복송된 4살배기 등 탈북자 석방 촉구(미국의소리)
	12.6	통일부, 北핵실험 지역출신 탈북민 대상 피폭검사 완료(연합뉴스)
	12.7	북, 재입북자 제보로 탈북자 가족 검거(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12.5	캐나다-스위스-스웨덴 “정기적 대북지원 분배감시”(미국의소리)
	12.6	호주 “북한, 독립적 분배감시 요청 번번이 거부”(미국의소리)
		WFP, 내년 북한 주민 영양 평가 실시...북한 당국과 논의 중(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2. 3.

■ 몽골 “북한 노동자 비자 갱신 중단”...1200명 연말까지 귀국 해야(미국의소리)

- 몽골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 중단을 결정하여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 1천200여 명이 연말까지 귀국길에 오르게 됨.
- 몽골 노동부는 3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몽골 건설현장과 섬유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1천 200여 명이 올 연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됨.
- 유엔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였으며,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함.

2017. 12. 6.

■ “북 인권 정보 수집” 퀴타나 북 특별보고관 11일 방한(자유아시아방송)

- 토마스 오헤야 퀴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1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최근 정보를 수집할 계획임.
- 퀴타나 특별보고관은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후 15일과 16일 양일간 일본에 머무르게 됨.
- 그는 2016년 7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 차례 임기가 연장된 바 있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美상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외부 정보유입 강화”(연합뉴스)

-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이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함.
-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미국의 종합적인 북핵 위협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달 말 북한의 신형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 발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임.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황임.

-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임.
- 상원 외교위가 이날 의결한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함.

2017. 12. 7.

■ **“중, 북한 국경 5곳에 난민수용소 건설 계획”(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국경이 접해 있는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창바이현 정부가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해 북한 난민 수용소 여러 곳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중국 통신회사인 바이산 지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 주민이 대량 유입될 것을 상정해, 지린성 창바이현 정부가 관내에 5곳의 난민수용소를 세울 계획을 세움.
- 당국의 난민수용소 건설 방침에 따라 바이산 지부는 이미 관계자를 북중 국경의 난민수용소 입지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이동통신 기지의 설치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대북 국경선이 260킬로미터에 달하는 창바이현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삼지연군, 보천군, 삼수군 등과 접해 있어 난민수용소로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음.
-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의 도발로 무력충돌이 발생해 전쟁으로 비화할 때 창바이현에는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창바이현 정부측은 난민촌 건설 계획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문서 유출 경위를 추적하고 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2. 6.

■ **국제적십자위원회 “북한서 한국전 불발탄 사상자 매년 150명”(자유아시아방송)**

- 국제구호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한국 전쟁 때 사용된 불발탄을 제거하는 훈련을 최근 북한에서 벌임. 북한에서는 매년 150명이 불발탄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됨.

-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휴전 후 북한에서 발생한 불발탄 폭발 사건은 총 5천24건이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1만6천215명으로, 매년 150명 꼴로 조사됨.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힘.
- 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한국 전쟁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서 잔류 폭발물(ERW, explosive remnants of war)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주거 불안 뿐 아니라 농작물, 수자원 등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

2017. 12. 7.

■ **FAO, 북한 올해 쌀 140만 수확...지난해 대비 30만 감소(미국의소리)**

-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만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힘. 극심한 가뭄의 영향이라는 설명임.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 (Food Outlook)'에서 북한이 올 가을 추수에서 140만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함.
- 지난해 170만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임.
-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160만의 쌀을 생산했던 것에 비해서도 20만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FAO는 밝힘.
- 보고서를 작성한 FAO 수석 경제학자이자 농업경제 정보부 국장인 아브돌레자 압바시안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감소폭이 매우 크다며, 올해 비정상적으로 건조했던 날씨의 영향이라고 밝힘.

2017. 12. 8

■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해 46만 부족(미국의소리)**

-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함. 가뭄과 대북 제재로 올해 45만 8천의 식량이 부족했다는 설명임.
-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7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함.
- 올해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관개 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등의 제재로 경제 상황이 나빴던 것을 주요 이유로 들음.
- 이로 인해 올해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 (Food Outlook)’에서 북한이 올 가을 추수에 서 140만t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2. 4.

■ 남성 탈북민 교육 제2하나원 개원 5주년 맞아(연합뉴스)

- 남성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 교육을 위해 마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 분소(제2하나원)가 5일 개원 5주년을 맞음.
-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제2하나원은 2012년 12월 문을 연 뒤 남성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13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1천 217명이 입소했음.

2017. 12. 5.

■ 전문가 “재난 공동대응 독일처럼 남북 재난합의서 체결 바람직”(연합뉴스)

- 남북한 간에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각종 재난대응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국내 전문가가 제안함.
-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5일 이 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학술회의 ‘제7회 사이오 인권포럼’ 발제문에서 “대북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 협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함.
- 이 실장은 현저히 떨어지는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남북한의 평화 정착기여 등의 측면에서 남북 간 재난 협력 필요성을 제기함.
- 그는 “재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및 대비, 사후 복구까지 염두에 둔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분야로는 가뭄·홍수 등 재해 발생 시 인도적 긴급구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접경지역에서의 재난예방, 산림 및 조림과 관련한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협력 등을 거론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7. 12. 5.

■ **국제앰네스티, 강제 복송된 4살배기 등 탈북자 석방 촉구(미국의소리)**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후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함.
- 국제앰네스티는 5일 긴급행동(urgent action)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석방을 촉구함.
- 국제앰네스티는 4세 아들과 함께 그 어머니 24세 이수정(Lee Su-jung) 씨를 비롯한 탈북자 10명이 현재 신의주 소재 북한 보안 당국에 억류돼 있다고 밝힘.

2017. 12. 6.

■ **통일부, 北핵실험 지역출신 탈북민 대상 피폭검사 완료(연합뉴스)**

- 통일부는 6일 북한에서 핵실험이 진행된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에 대한 방사능 피폭검사가 완료됐다고 밝힘.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길주군 출신의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피폭검사는 11월 말에 종료가 됐다”면서 “관련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함.
- 백 대변인은 피폭검사 확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12월 말 검사 결과를 보면서 추후 판단을 하겠다”고 답함.
- 최근 길주군 인근에서는 핵실험 여파로 보이는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제기돼 왔음.

2017. 12. 7.

■ **북, 재입북자 제보로 탈북자 가족 검거(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국가보위성이 양강도 일대에서 한국과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는 소식임. 최근 재입북한 탈북자 부부가 이들에 관한 자료를 당국에 제공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 6일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이 한국에 정착했다 최근 재입북한 탈북자 부부의 제보를 바탕으로 혜산시에서 주민 20여 명을 긴급 체포했다”면서 “재입북한 손씨 부부가 또 누구를 지목할지 몰라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지난 10월 말, 남한에 살던 탈북민 부부가 재입북해 혜산으로 돌아왔다”면서 “이 부부는 재입북하면서 중국인민폐 50만 위안(8천 5백만 원)을 당에 바치고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동향을 당국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함.

- 소식통은 또 “이 부부의 제보로 긴급 체포된 주민들은 탈북자 가족이거나 그동안 한국과 전화연계를 가져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면서 “체포된 주민들은 한국과 연계 혐의를 받고 있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5. 대북지원

2017. 12. 5.

■ 캐나다·스위스·스웨덴 “정기적 대북지원 분배감시”(미국의소리)

-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한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함. 일부 국가가 미흡한 모니터링 실태를 문제 삼아 지원을 중단한 것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캐나다 정부는 유엔 등의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후속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밝힘.
- 에이미 밀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유엔 등 경험 많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 캐나다 정부는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각각 미화 112만 달러와 37만 달러를 지원함.
- 밀스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현장 분배감시 외에도 WFP, 유니세프 본부, 북한 사무소 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종합적인 연례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다른 나라, 단체들과 지원 전달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힘.

2017. 12. 6.

■ 호주 “북한, 독립적 분배감시 요청 번번이 거부”(미국의소리)

- 호주 외교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 유엔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 북한 당국은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분배감시와 평가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호주 외교부가 밝힘.
-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5일,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 호주 당국자들이 (유엔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인 분배감시와 평가를 위해 북한에 방북 요청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WFP, 내년 북한 주민 영양 평가 실시...북한 당국과 논의 중(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내년에 북한에서 가정 방문 영양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WFP는 올해 74개 시, 군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힘.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임.
- WFP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양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북한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함.
-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끼니수, 고기나 생선, 달걀, 콩 등의 단백질 섭취량, 식량 부족 대처 방안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 WFP는 올 한해 이 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74개 시, 군을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이 같은 분배 감시 활동을 통해 이 기구의 지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 지 등을 신중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 (No access, no assistance)'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분배 감시 장소는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힘.